사 설

사하촌 정비 시급하다

산자수명한 곳에 위치한 고찰을 찾아가면 누구나 고향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매표소 근처에 도착하는 순간 기분이 상하고 만다. 사찰 초입의 사하촌(寺下村) 대부분은 음식점들, 조잡한 기념품들을 파는 상가, 여관, 단란주점과 노래방들로 무질서하고, 심지어는 호객행위까지 하여 참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이다.

사하촌의 무질서와 향락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져 수행환경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사찰을 관광지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불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학사가 일주문 안에 자리잡고 있던 계룡휴게소 등 음식점 3곳을 경내지 밖으로 이전시키고 이곳을 새롭게 보수해 불교문화센터로 꾸민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동학사는 이곳을 대대적으로 수리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름불교학교와 불교도서관, 서예실, 부처님가르침과 한문을 같이 배울 수 있는 불경서당 등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잇는 포교센터로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하촌이 정비되는 데에는 주지 일연스님의 수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수익 때문에 사찰과 연계시킨 관광개발사업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사찰의 수행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 99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찰환경 수행환경을 보호할 안전판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에 소극적이다.

사하촌 정비와 올바른 사하촌 문화 정립은 단시일에 가능하지 않다. 사찰측이 인내력을 갖고 꾸준히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지 않도록 그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찰소유의 상가일 경우 사찰 품위에 맞는 상가나 음식점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스님들과 사하촌 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깨끗한 사찰, 청정한 수도도량이 유지되도록 무질서한 사하촌을 정비하고 올바른 사하촌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재가연대' 발전적 변신

봄이 왔음을 아는 데는 매화꽃 한 송이로 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징후 혹은 조짐을 통해 한 사회나 집단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격월간 잡지 형태로 창간 준비호를 낸 '참여불교 재가연대'의 변화를 보면서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몇 가지 희망의 단서를 발견한다.

그 희망 하나. 불교 시민 운동의 밝은 미래를 예감한다. 이번의 변화는 불교 시민 운동의 구심체로서 한국 사회를 향해 활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참여불교 아카데미'나 출판, 주말 생태농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희망 둘. 참여불교운동의 본격화를 기대한다. 20세기 초 · 중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인도의 암베드카르와 태국의 붓다 다사 등에 의해 이념적 · 실천적 기틀을 닦은 '참여불교'는 아시아 불교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고, 오늘날에는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같은 스님들이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 불교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될 참여불교 운동에서 재가연대의 구실은 실로 막중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참여불교의 방편 제시, 이것이 재가연대에 거는 기대의 핵심이다.

희망 셋. 재가연대의 내적 역량 성숙과 자신감이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겸손은 건강한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다. 이미 재가연대는 올 2월 24일을 기해 애초의 이름인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에서 '참여불교 재가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이념과 실천의 지향점을 '수행과 희망의 불교공동체'로 설정했다. 자기 존재 확인에 대한 강박이나 노선의 선명함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 동안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발행해 오던 회보를 유가 잡지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역량의 성숙과 유연성으로 보인다. 이론과 실천 양면에 걸쳐서 내실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준공

7개동 7년공사…발전기원법회 5백명 참석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준공식이 14일 대학본관앞에서 개최됐다.

중앙승가대학교의 김포학사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중앙승가대는 조계종의 중추 승가교육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여 제 2의 중흥기를 맞게 됐다.

중앙승가대(총장 종범)는 14일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원로의원 성수 도원스님과 명예총장 석주스님을 비롯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본관 앞에서 김포학사 준공식 및 발전기원법회를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총장 종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그동안 힘을 아끼지 않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7년 간의 공사 끝에 완공한 김포학사 준공을 계기르 학교의 모든 역량을 내실있는 교육발전에 쏟겠다"고 밝혔다.

총장 종범스님은 중앙승가대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교육여건 개선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후생복지사업 △지역사회 봉사 △국제교류 등의 사업에 역량을 결집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이어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치사를 통해 "김포 학사 이전을 계기로 종단발전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세간에 회향할 인력불사를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대학원을 설립하여 학교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학사는 53,000평 부지에 대학본부(2,429평), 교수회관(1,027평) 강의동(1,332평), 비구수행관(2,303평), 비구니수행관(1,946평), 에너지관리동(225평)등 7개 건물과 운동장 야외강당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구 · 비구니 수행관이 건립돼 480여명의 재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재가연대 교단자정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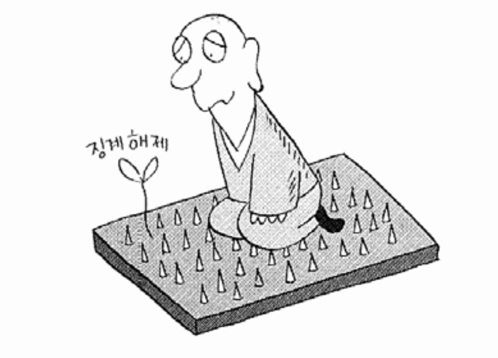
대안공동체委도 결성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2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2주년을 맞아 교단자정센터 발족식을 갖고 교단 청정성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자정센터는 불교 공동체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가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종단상을 재정립하고,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불교계 자정운동과 교단 감시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각 사찰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재가연대는 9일 박광서 상임대표와 류성국 법사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 초록마을 공동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안공동체 초록마을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초록마을 준비위'는 앞으로 생태마을 조성, 가족소농에 의한 태평농법 실현, 대안고등학교 설립 등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묘원 조성, 허브농원 조성, 도농네트워크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봄도 오는데…

'효사상' 한일불교대회

5월14~17일 봉은사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홍파)는 15일 서울 하림각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오는 5월 14~17일 서울삼성동 봉은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불교의 효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한국 일본 두 나라에서 300여명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 10일 부여에서 불교전래기념비 건립 30주년을 맞아 관련 법회를 두 나라의 불교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했다. 불교전래기념비는 70년 일본 불교협회가 세웠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또 11차 이후의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화보집을 5월 발간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부처님오신날 청와대불상 참배

박준영 공보수석

박준영 청와대불자회 회장(공보수석)은 1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종단협의회 이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후로도 편향없는 종교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청와대 석불을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민족문화 보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불교계에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박 공보수석에게 부처님 오신날 특별가석방의 확대 실시, 사이비종단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과 부회장인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정사 등 각 종단대표 28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재추진

대만방문에 힘받아…국제인사 66명도 지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 라마가 31일 대만을 방문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국내의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지난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가 우리의 초청을 다시 수락했다"며, "외교당국자들도 지난해 11월 달라이 라마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당시 올해는 방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만큼 올해는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준비위는 "중국이 한나라임을 주장하는 대만조차 올해 3월 달라이라마를 세 번째로 맞이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 반대 압력을 계속할 경우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유치 반대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한 준비위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시기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붕 중국 총리 등의 방한이 이뤄진 후 상반기 말이나 늦어도 중반기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넬슨 만델라의 방한을 환영하는 논평과 국제적인 저명인사 66명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한 66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 도쿄주재 티베트망명정부 동아시아대표부 자툴 린포체 대사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달라이 라마 방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종단협 통일기원 대법회 연다

4월 23일 롯데호텔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15일 올해의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대법회는 4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 종단 총무원장과 신도 대표, 정 · 관계 인사, 시민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봉축테마열차 운영에 각 종단이 적극 참여키로 하고,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이 테마열차 4칸중 3칸의 장엄 비용(7500만원)을 내기로 했다.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홍보만화를 제작 배포키로 하는 한편 가두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으며, 부회장에 지하스님(조계종 종회의장)을 추가 선출했다.

상임이사회는 또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과 화염병 사용 등 폭력 시위 자제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서산대사 탄신 제 481주년 봉찬행사 초대

서산대사의 禪사상과 호국정신을 오늘에 꽃 피웁니다

초대의 글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서산 휴정스님의 정신을 오늘에 꽃 피우고자 합니다.

대둔사(대흥사)는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된 이래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하여 조선시대 선교양종의 대도량으로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서산 휴정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교육, 연구, 수련, 장학, 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 호국성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이어 '조선불교연구소'를 발족하여 조선불교를 새로이 조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서산대사 탄신 제 481주년을 맞이하여 봉찬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서산휴정스님의 禪사상과 호국정신이 오늘날 계승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봉찬행사에 두루 참석하여 주실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행 사 안 내

■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및 성역화사업 출범식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4일(음3월1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해남 대둔사

■ 호국성지 건립발원 10만등불사 점등식(오후5시)

■ 제7회 나라사랑 글쓰기대회(오전9시)

■ 대둔사 제1회 학술세미나
주 제 : 조선시대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일 시 : 불기 2545(2001)년 3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조계사 교육문화관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
☎ (061) 534-5502.5503.5588 전송 (061) 535-5357
홈페이지 : http://daedun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 둔 사

조 실 천 운 상 원 주 지 보 선 합장

서산대사 진영